

30대 정치인의 신선한 바람...지방선거·대선 영향 촉각

뉴스초점 / 이준석 돌풍과 호남민심

국민의힘 지지율 두자리수 넘어서 흔들리는 텃밭 민심에 민주당 긴장

신진 발굴·육성 '호남 객토' 목소리

6·11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급부상하고 있는 '이준석 돌풍'에 호남 민심이 주목하고 있다. 최근 호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두 자리 수를 넘어선 가운데 보수야당의 변화와 쇄신을 상징하는 '이준석 돌풍'은 강도에 따라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거세지는 이준석 돌풍=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28~29일 이틀 동안,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를 묻은 결과 이준석 후보는 39.8%로 1위를 차지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위 나경원 후보(17.0%)를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앞섰다. 주호영 후보(3.4%)와 홍문표 후보(3.2%), 조경태 후보(2.4%) 등 현역 의원들은 5%를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 한정하면 이 후보는 50.1%로 과반을 넘었다. 또 예비경선 일반국민 여론조사 득표율(이준석 51%, 나경원 26%)과 비슷한 양상이다.

물론, 예비경선(일반 여론조사 50%·당원 투표 50%)과 달리 본 경선에서는 당원 투표가 70%, 일반 여론조사가 30%라는 점에서 '이준석 돌풍'이 현실화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당심과 민심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 후보는 후원금 모금에 나선 지 불과 사흘 만에 1억5000만 원 한도를 거의 다 채우는 등 기염을 토하고 있다.

◇서진정책 가속화= '이준석 돌풍'은 민주당의 정치적 텃밭인 호남 민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0대에 원외인 이 후보가 혁신 보수를 상징하면서 국민의힘 서진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달 30일 광주에서 치러진 합동연설회에서 각 당권 후보들은 적극적인 호남 구애에 나섰다. 이준석 후보는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계

승해 정치를 하는 첫 세대라고 자부한다"고 했고 나경원 후보는 "정권 탈환을 한다면 내각의 30%를 호남 출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후보는 "호남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없다"는 호남 확대정책 분명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과거 국민의힘 전신 정당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민의힘에 거리를 뒀던 호남 민심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이 정권재창출에 방점이 찍혀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여권이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예전의 결집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호남 민심이 기존의 보수와 진보의 구도를 깨고 국민통합을 위한 전략적 선택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최소 2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보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민주·진보진영의 심장인 호남 민심이 그럴 리 없다는 반응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안심할 처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호남 객토론' 부상=30대에 원외인 '이준석 돌풍'은 무기력증에 빠진 호남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당장,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젊은 주자들을 대거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젊은 인재들을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최대한 진출시키는 등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발을 갈아줘야 한다는 '호남 정치 객토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줄서기, 기득권 구조에 기반해서는 호남의 미래를 담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등을 대비, 청년과 여성 공천을 위한 세부 지침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는 변화와 쇄신을 상징하는 20·30 세대를 잡지 못한다면 내년 대선 승리도 물 건너간다는 절박한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이준석 돌풍'은 여론의 변방에 안주하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자극이 되고 있다. 미래를 위한 쇄신의 정치를 선점하지 못한다면 차기를 담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준석 돌풍은 민주당과 호남 정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과감한 변화와 쇄신만이 민주당과 호남 정치가 미래를 열어가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 경청 프로젝트 '찾아가는 민주당' 현장 방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직장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청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심경청 프로젝트 끝낸 송영길 대표 '조국 사태' 입장 밝힐까

대변인 "메시지 낼 계획 없어"

당 일각선 사과 가능성 거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특히 전국을 대상으로 민심을 듣는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에 대한 당 안팎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당원과 일반시민, 젊은 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이 프로젝트에 담기고, 이를 통해 향후 당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지난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로 일주일간의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를 끝내는 송 대표는 그간 청취한 민심을 종합해 오는 2일께 민심경청 보고회를 할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보고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송 대표가 조 전 장관 문제에 대해 사과 등 모종의 입장을 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당 대표 취임부터 '쇄신'을 기치로 든 송 대표는

민심 경청 과정에서 조국 사태를 집중 성토했는 청년들의 '부모 찬스', '불공정' 문제 제기에 일부 공감을 표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자칫 강경파의 반발로 '자중지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입장 표명 여부부터 메시지 수위 등을 끝까지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 문제에 대해 논의했는지와 관련해 "당장 일부 언론에 나온 것처럼 메시지를 낼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송 대표는 여러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관련된 판단을 하겠다(고 했다)"며, "경청 프로젝트가 완료됐기에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고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최고위에선 (조 전 장관) 관련해 전혀 이견이 있지 않았고, 조 전 장관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나올 텐데 잘 들어보고 메시지가 나가야 한다면 잘 논의하고 협의를 해보겠다"고 전했다. 특히 조 전 법무장관의 자서전 출간이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송 대표가 '조국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지 더욱 주목된다. 당 일각에선 2030 청년층 민심 회복을 위해 송 대표가 이번 기회에 조 전 장관 문제를 털고 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번에도 털지 못한다면 대선 국면에서 더 큰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도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25일 "조국, 오거돈·박원순 사태부터 시작해 우리 당의 내로남불, 부동산(문제)까지 당이 짚고짚고 '피해 호소인' 같은 말로 논란을 빚기도 했고 명쾌하고 정확하지 못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당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안은 차치하고, 조 전 장관 자녀와 관련한 '부모 찬스' 지적의 경우 국민에게 상처를 줬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지 않느냐"며 "입장을 낸다면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전 장관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는 당내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야당의 '조국 공세 프레임'에 휘말려 윤석열 전 검찰총장만 키워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 초선의원들 문 대통령 만난다

더민초 3일 청와대 방문 차담회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이번 주 청와대를 방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주담회다.

지난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는 오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차담회를 갖는다. 문 대통령이 총선 후 초선의원들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자리

는 초선 의원들의 건의로 이뤄졌다.

더민초는 지난 장관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 인준과 관련, '최소 1명은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내놓아 박준영 후보자의 낙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이를 반영하듯, 더민초는 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4·7 재보선 참패 이후의 민심부터 부동산 정책 등 각종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쏠소리를 던질 것

로 전망되고 있다.

더민초 관계자는 이번 "일단 초선 81명 전원이 참석할 계획"이라며 "각 모듬별로 문 대통령에게 전달할 의견을 취합 중"이라고 말했다.

더민초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찾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간담회 이후 청와대 차담 일정은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상황을 감안해 일부 대표단만 방문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대통령 면담 기회가 많지 않은 만큼 초선 전원이 방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30일 오후 광주 서구 차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첨단우리병원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상장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